

김춘식 교수님의

## 『기독교대학의 영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평

김지원 (백석대학교)

논평에 앞서 백석대학교 부총장으로 섬기시는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쪼개어 신앙과 학문 통합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주신 김춘식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김춘식 교수는 축제전문가이십니다. 천안흥타령축제의 기획단장으로 지역 축제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에 기여하셨고,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아산성웅이순신축제 등 국내 유명한 지방 축제의 자문과 기획을 맡아 지역 축제를 통한 지역주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애써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시고, 부총장이란 직책에도 불구하고 젊은 교수들과 함께 백석대학교에서 기독교학문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는 신앙과 학문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새로운 연구 분야에 도전하시는 것에 대하여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본 논문을 통해 연구자는 영성의 개념을 고찰하여 정의를 내리고, 영성교육의 필요성과 영성교육의 목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론적 고찰에 이어, 연구자는 백석대학교의 영성교육 사례로 대학예배와 기독교인성과목 등을 통한 인성교육 현황과 그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에서 연구자는 백석대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보다 나은 영성교육의 실천을 위해 각 학부의 담임목사와 학 전공의 지도교수가 함께 협력해야 함을 밝히면서, 모든 교수가 영성교육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영성교육에 개입해야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는 영성(spirituality)이라는 용어를 설명함에 있어 기독교 외의 다양한 종교에서도 영성이라는 용어가 오랫동안 사용되었으며, 영성이라는 용어는 그 개념 정의에 있어서 애매성과 모호성을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보건의료분야에 기독교세계관을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한 연구의 하나로 보건의료인의 영성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연구자와 같이 영성의 개념이 폭넓고 연구자마다 다양한 주장을 한다는 것을 알고, 영성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의 영성교육을 위해 목사와 함께 전공 교수가 같이 협력하여야 한다는 연구자의 의견에 공감을 하였습니다.

김춘식 교수님의 논문을 읽으면서 일반학문의 전공자보다 신학 전공자가 논평을 했다면 더 좋은 논평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부족하지만 논문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과 제가 생각한 점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인용하신 Astin, Astin과 Lindholm(2011)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236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영성과 대학생활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영성의 성장이 학점, 심리적 안녕, 리더십과 대학 생활의 만족도와 같은 다른 성과를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하고 계십니다(Astin, Astin과 Lindholm, 137-157). 책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드리는 질문인데, 이러한 연구결과가 기독교대학들을 조사한 연구인지 중

교와 상관없이 조사한 연구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독교대학들만 조사한 연구라면 모르겠지만, 혹시 종교와 상관없이 조사된 연구결과라면 기독교영성과 상관없이 모든 영성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둘째, 의사이자 영성가인 데이비드 호킨스(David Hawkins) 박사의 《의식혁명》이라는 책에 나오는 ‘의식의 지도’라는 것을 인용하셨는데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호킨스가 이야기하는 에너지가 무엇인지 행동운동역학적인 연구 즉, 인체운동학(kinesiology)은 인체의 움직임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으로 제가 강의하는 과목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데이비드 호킨스가 언급하는 것이 근전도기기를 이용한 근활성화검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데이비드 호킨스의 주장은 기독교세계관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 보이며, google을 검색하여 비판한 글과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와의 대담이라는 내용을 실은 사이트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생각이 더욱 강해집니다. 제 생각에 연구자께서 본 연구의 논지를 이어가는데 있어, 데이비드 호킨스의 주장을 언급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며,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셋째, 영적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시면서, 영적훈련을 통해 영적근육이 길러진다는 내용의 의미는 이해하겠지만, “영적 근육이 길러진다는 말은 실제로 우리의 두뇌에서 영성 영역에 해당하는 좌측전전두엽의 뉴런에 새로운 시냅스가 생겨나고 튼튼해진다는 말이다”라고 언급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급하신 내용과 같이, 학습, 기억과 관련된 신경세포의 변화는 실험적으로 확인된 사항이지만, 영성훈련에 의해 좌측전전두엽의 신경세포에 새로운 시냅스가 생겨나고 튼튼해진다는 주장은 우리가 있어 보입니다. 학습을 통해 기억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신경세포의 핵에서 유전물질이 발현되고 신경세포의 형태변화와 함께 새로운 시냅스가 형성된다는 것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지만, 영성훈련이 이와 같이 새로운 시냅스를 만든다면, 학습된 것이 단기기억에서 장기기억으로 저장되듯이, 영성도 일정기간 저장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영적근육이 더욱 튼튼해지고 끊어졌던 연결망이 회복되고, 대뇌의 영성 영역의 DNA가 연결되고 재생되어 육체의 치유는 물론 영혼의 치유도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설명은 영적훈련을 통한 영성발달을 신경해부학적 구조와 변화로 설명하기 위한 무리한 연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연히 다른 목사님으로부터 김춘식 교수님께서 이번에 루미큐브대회에 참석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늘 젊은 학생들과 함께하려고 노력하시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시는 모습이 김춘식 교수님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대학의 영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문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연구는 백석대학교 부총장으로서 기독교대학의 영성교육의 현재를 바라보며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연구자의 절실한 심정이 녹아있는 연구라 생각합니다. 올바른 영성교육을 위한 김춘식 교수님의 귀한 연구가 백석대학교의 영성교육을 넘어 모든 기독교대학의 영성교육에 귀한 디딤돌이 되길 기대하며 논평을 마칩니다.